

## 1967년 개관 후 꾸준히 발굴 조사·학술 연구

제주대학교 박물관

데스크승인 2014.03.13 강민성 기자 | kangms@jejunews.com



제주대학교 박물관은 1967년 3월 제주대학교 부속 민속박물관으로 문을 열었다. 1985년 6월 제주대 박물관으로 개편해 종합박물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며 2012년 현재 위치에 등지를 트는 등 네 차례의 이전을 거쳤다.

제주대 박물관은 일반 유물 8000여 점과 고고 유물 2만여 점 등 모두 2만8000여 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소장유물 가운데는 중요 민속자료인 내왓당무신도 10점과 제주도 지정 문화재인 돌하르방 4기와 남방애 1점이 있다.

제주대 박물관은 개관 이래 각종 학술조사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특히 1990년대 들어 각종 개발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제 발굴과 문화재 지표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제주를 비롯한 국내·외 고고와 미술, 역사, 민속 분야의 자료를 수집하고 전시·보존하며 학술 연구에 공헌해 왔다.

건물 2층에 마련된 상설 전시실은 '제주의 바다와 땅, 사람'을 주제로 3개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제1 전시실 '제주의 바다'는 구석기시대부터 현재까지 유적 조사를 통해 본 제주역사 연표와 선사 시대 어로유물, 테우, 해녀들의 물질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제2 전시실 '제주의 땅'은 크게 제주의 부역과 생활, 농경·목축·수렵·복식, 목가구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제3 전시실 '제주의 사람'은 도민들이 고유의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외부 문화를 적절히 수용해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온 과정을 유물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강민성 기자 kangms@jejunews.com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